



酪農의 나라 덴마크

年 50億 \$어치 輸出

調 查 部

농사를 짓는다하면 흔히 「가난하다」는 말이 되던것이 「잘산다」는 말은 별로 통하지 않는다. 누구나 입을 열면 『선진공업사회를 이루고...』지, 『풍요한 농업 국가를 이루고...』로는 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건 「덴마크」를 빼놓고의 얘기다. 여기서선 꺼꾸로 농업이 富의 源泉이다. 우선 몇 가지 통계를 들어보자.

도대체 「덴마크」란 인구(5백 15만명)로치면 서울하나 보다는 훨씬작은 「꼬마」나라다. 그중에서 농업인구는 전체의 7%인 35만명. 그중에도 전적으로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수란 겨우 11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農業人口는 겨우 7%

그런데도 「덴마크」는 믿건 말건 돼지고기 수출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 각종 통조림 식품의 수출에서도 제일이다. 그리고 「치즈」에서는 세계, 「버터」에서는 네째, 작년한해 農産品수출이 이 나라 돈으로 1백 55억 「크로네」, 美貨로 쳐도 실히 50억 「달러」나 되니까 입이 저절로 벌어질 액수다. 그걸 物量으로 치면 적

어도 1천만명이 1년은 넉넉히 먹고살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덴마크」 농민들은 제나라의 세력이 넘는 인구가 먹을만한 농산품을 만들어낸다는 계산이 된다.

그렇다고 「덴마크」가 농업국이라서 그런것도 아니니 더욱 기가 막힌다. 이 나라는 어느 모로 보건 어엿한 공업국가다. 고용면에서만도 취업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농업보다도 몇배나 크다.

수출에서 65도년 이래 공업제품(75년은 65.9%)은 농산품(같은해 28%)을 크게 능가해왔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공업 국가라는데는 이웃 다른 나라와 다름이 없다. 다름이 있다면 「덴마크」의 경우 공업도 발달했고 농업으로도 큰 돈벌이를 한다는 거다.

이 「덴마크」 사람들에게겐 남들과 다름이 있다.

家畜數가 사람의 곱질

우선 農業이란 것부터가 「땅을 파서 곡식을 심어 먹는」 그런 통상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農業은 거의다가 畜産을 바탕으로 한 酪農

주근 싶은 마음 * 먹고 싶은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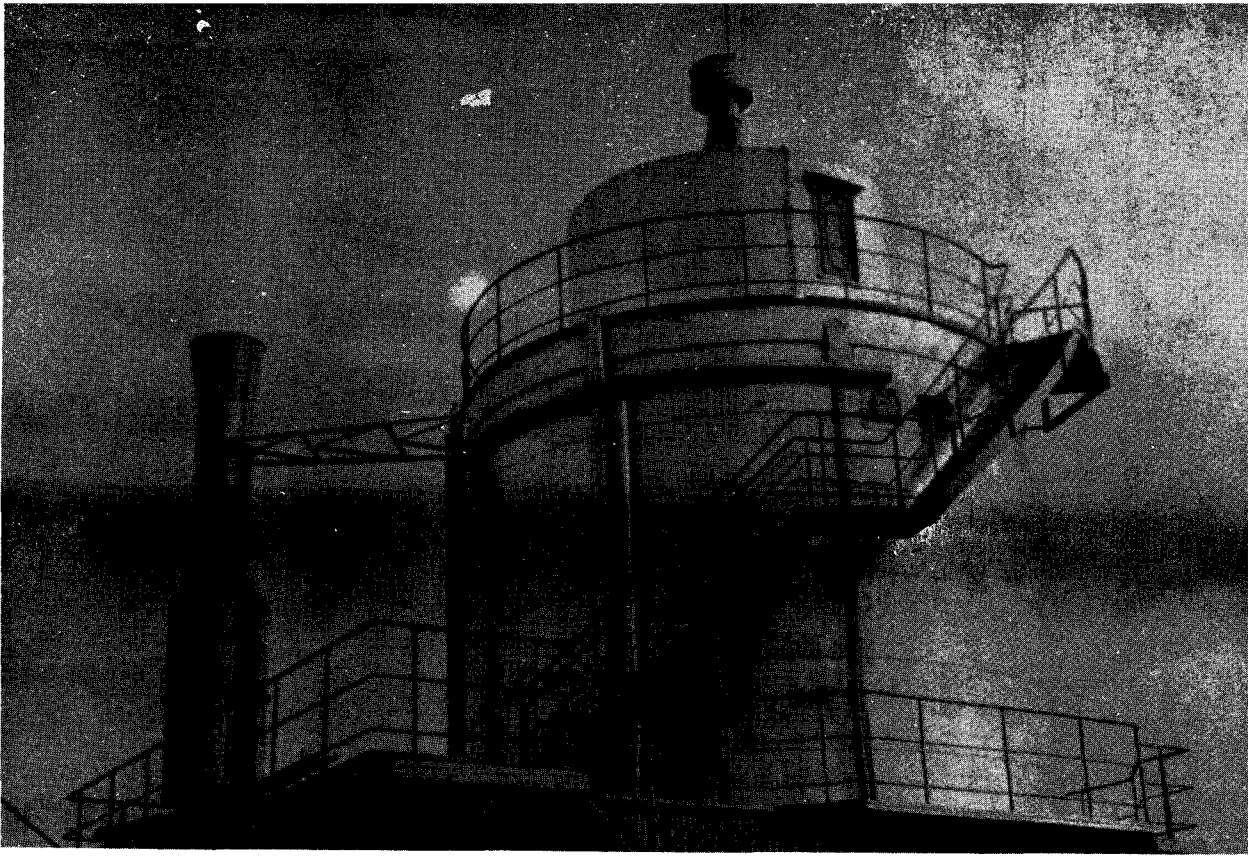
酪農科學의 理想實現!

酪農의 不毛地帶 여기, 밭(田)을 갈았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씨앗을 뿌렸습니다.
韓國酪農의 새싹, 아름드리 巨木으로 키워서
酪農科學의 理想을 實現하겠습니다.



대일유업(주)





새로운 SPRAY DRYER 施設은
科學的인 管理로
폭 넓은 食品添加物의 開發을 主導합니다.
品質을 保障하는 優秀製品

※ SPRAY DRYER 製品

- 콘시럽스 (粉末 물엿)
- 粉末 醬油類
- 活性 Gluten.
- 肉類 및 魚貝類 엑기스 粉末
- 大豆蛋白質
- 其他 인스탄트 食品原料

※ 化學製品

- CMC (合成糊料)
- 塩 酸
- 슈퍼비스 (天然糊料)
- MCA
- 기타 MCA 誘導體

※ 人蔘 및 人蔘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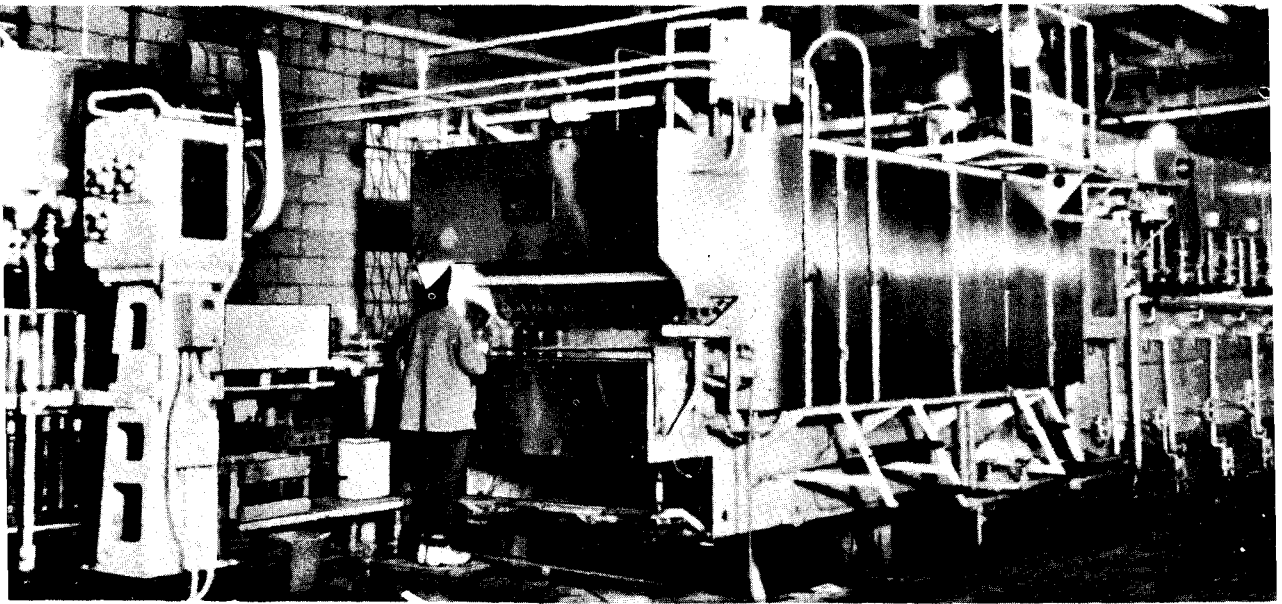


高麗人蔘製品株式会社

서울特別市 鍾路区 鍾路二街 75~9

TEL. 75-6351~7

샘표는 품질을 보증합니다.



샘표는 1946년에 창설된 이래, 국민식생활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금까지 장유양조에 대한 오랜 경험을 쌓아왔고, 우수제품만이 국민생활개선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수있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품질개선과 생산에 임하여 왔습니다.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위하여 최신의 기계, 설비를 이미 오래전에 설치 가동중이며, 훌륭한 시설을 갖춘 실험연구실은 철저한 품질 위생관리를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공정과 철저한 관리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샘표식품공업주식회사

世界로 向하는



第一香料

天然食用色素
食品香料
香粧品香料
産業用香料

天然食品各種原料
인스턴트食品原料
香 辛 料

第一香料化学工業社

本社：釜山市 影島区 青鶴洞 57番地

總販：釜山市 東光洞 釜山데파트 306号

支社：서울市 中区 南倉洞 東洋빌딩 301号

TEL. ④ 1771~3

TEL. ④ 2204

TEL. ④ 7778, 8777

茶의故郷은自然

健康에 좋은 天然茶를 즐기시다.



◆◆◆ 좋은 茶를 開發하는 맥스웰커피의 東西食品 ◆◆◆

東西食品은 自然으로부터 우리固有의 傳統的인 天然茶를 하나 하나 정성껏 開發하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주식회사
A JOINT VENTURE WITH
GENERAL FOODS CORPORATION



롯데라면
소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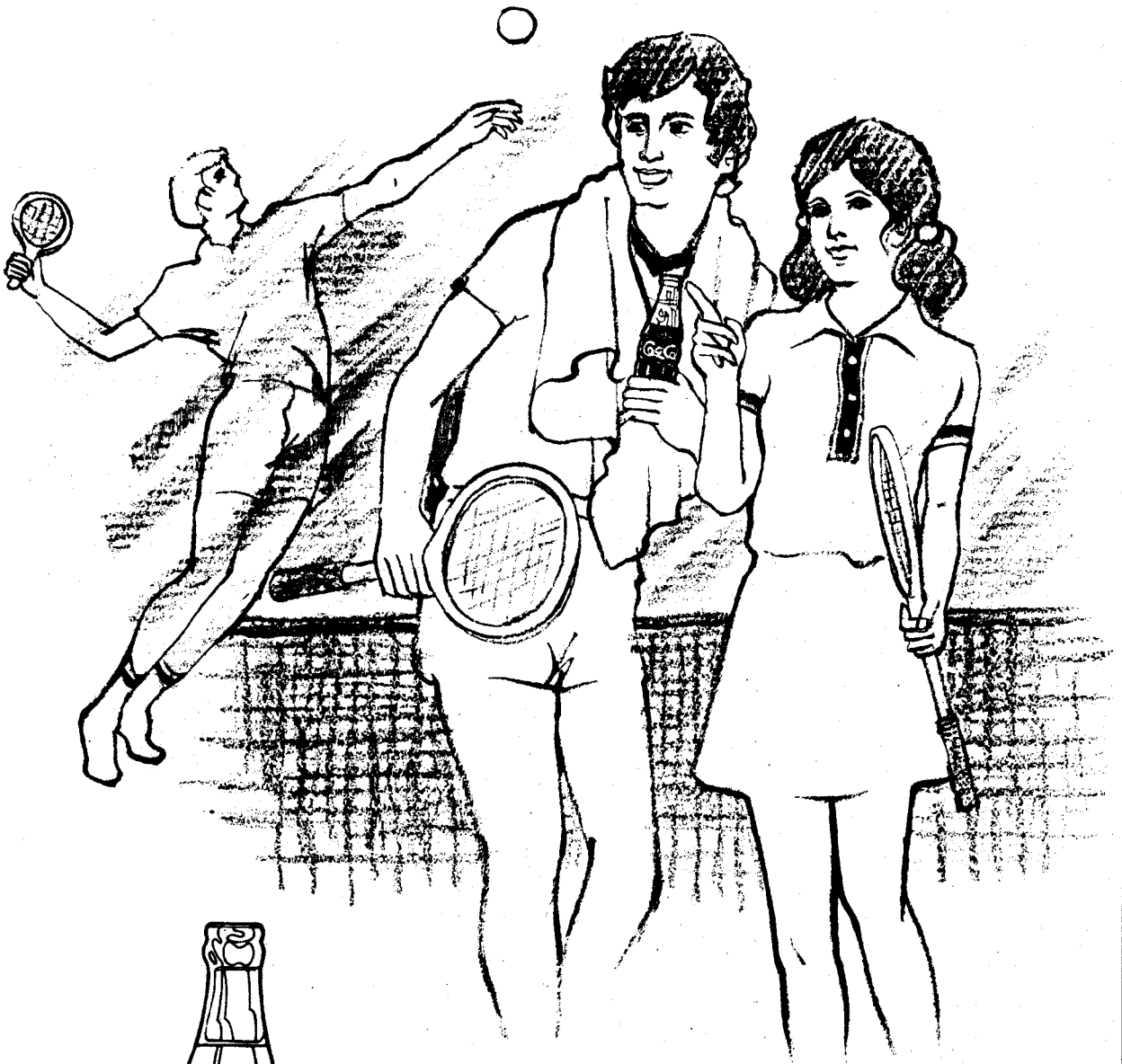
롯데공업주식회사



라면 10년의 결실!

롯데 **농심라면**

콩심은데 콩나고 팔심은데 팔난다.



산뜻한 그맛
오직 그것뿐!



해외로 수출되는... **해표 식용유**
100% 순 참기름... **해표 참기름**

고급 요리에..... **해표 사라다유**
가정용·식당용..... **해표 쇼트닝**

해표 식용유 자매품

해 표® 참기름

신발매



해표 식용유 메이커
東邦油糧株式會社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

본사 : 交63 - 3921 ~ 5, 直63 - 3867
부산 : 42 - 1131 ~ 3
대전 : 2 - 0494, 3921
진해 : 2161 ~ 3 대구 : 5 - 5434

이다.

이 나라 農業所得의 9할가량이 動物들에서 나온다. 실상 이 北歐小國엔 사람보다 家畜들이 더 많이 산다.

소가 1백30만마리에 돼지가 8백50만마리. 그러니까 소·돼지만도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더 많다.

그것만도 대단하지만 밀천은 또 있다. 이 나라 농사꾼들의 「억척」이다.

한예로 그들은 한해 자그마치 1천만마리의 돼지를 잡는다. 돼지는 「베이컨」이나 통조림이 되어 나온다. 「덴마크」란 이렇게 可謂 「돼지의 나라」인데도 「덴마크」사람치고 아침에 「베이컨」을 먹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돼지 5마리를 잡으면 4마리는 외국사람 입에 들어간다.

도대체 「덴마크」사람이란 農業을 보는 눈부터가 좀 엉뚱했다.

40億弗이 순이익

흔히 農業하면 어디서나 제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최선의 기능으로 여겨왔었다. 그러나 「바이킹」의 후예들에게 農業이란 벌써부터 밥거리를 마련하는 수단일뿐만 아니라 돈벌이의 밑천이었다.

그들에게 농업이 소위 輸出産業이 되어왔다. 실제 농산물 전체에서의 수출 비율은 66%를 넘는다. 그래서 이 나라 농민들은 농사꾼답지 않게 附加價值나 生産性의 極大化라든가 국제시장의 適期適應 문제에 극성스러웠고 그만큼 보람도 컸다. 수출액 50억「달러」의 原價가 10억달러 정도라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1次產品의 가공으로 附加價值率은 5백%, 공산품을 뽑치고도 남는다. 生産性은 지난 10년 동안 기계화·합리화등으로 꼭 2배가 높아

져 왔다는게 農業省당국의 공식통제다.

그들의 판매숨씨 또한 그들답게 대단하다.

한예로, 해외공관에 나가있는 農務官·의교관들은 농민들의 「앞잡이」요 「길잡이」래도 꽤 참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의 동향을 「독수리눈」으로 지켜보며 정보를 本國에 알린다. 농민 누구나가 회원이 패있는 각종 협동조합들은 그런 정보를 물질적으로 즉각 「번역」해 내는 교량역할을 맡는다.

食性이건 수요 「패턴」이건 모든 변화에 공급을 적응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두달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의 精液까지도 팔아

이렇게 높은 적응성에는 정부가 베푸는 재정이나 연구개발 등의 지원이 큰몫을 차지한다.

농장의 크기가 대개의 경우 中小규모라는 것도 그들의 적응성·기동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이룬다. 農民 35만명에 농장수는 그동안 많이 줄었다는 데도 12만7천개소나 된다. 작으니까 빠른 것이다. 그러나 빠르다는 것만이 밑천의 전부 일수는 없다. 안좋으면 안산다. 그래서 그들이 공들여 길러내온게 「덴마크」하던 質이라는 전설이다.

그리고 이런 무형의 재산을 지키려는 정부당국의 집념은 한 농협관계자의 말을 빌면 「경찰국가」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라는 것.

다만 「국민이 저항을 느끼지 않을정도」라는 단서를 붙이긴했지만...

그래서 좋지않은 물건이면 「덴마크」 땅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農業省관리의 말.

약간의 에누리야 있겠지만 이 나라의 농업이 남들이 보던 거의 「땀살 맞도록」 잘돼가고 있다는데는 별 에우리가 없는 것 같다.